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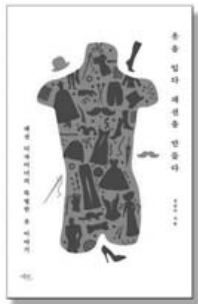
美에 대한 인류 욕망, 특별한 '옷' 이야기

새로 나온 책

●정연이 '옷을 입다 패션을 만들다' 출간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옷을 입는다. '옷'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지만 '패션'은 왠지 모르게 '잘' 입어야 할 것만 같은 중압감을 준다. 우리는 옷 속에 살며 어떤 옷을 입을지 평생 고민하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옷은 무엇일까.

옷 변천사부터 코르셋·바지 등 역사 속 이면까지 다뤄 패션 브랜드 행보 및 노동·환경과의 관계 등에도 주목



우리가 입은 '옷'이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책이 발간됐다.

패션 컨설팅 에이전시를 운영하며 홍익대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정연이 디자이너의 '옷을 입다 패션을 만들다' (에코리브르)이다.

어린 시절부터 옷 만들기를 좋아해 자연스럽게 관련 전공을 택하고 패션 디자이너가 된 그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세계적 명품과 우리나라 우수 패션 기업부터 저렴한 캐주얼 브랜드까지 디자인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그렇게 접한 패션 산업의 민낯과 가치관의 충돌, 파리 유학을 떠나 현재 홍익대 학생들에게 패션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기까지 보낸 고민과 배움의 시간을 패션의 역사와 함께 들려준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됐다.

먼저 '태초에 옷이 있었다'에서는 역사에 남을 호모 사피엔스의 바늘 발명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리틀 블랙 드레스', 청바지, 줄무늬 티셔츠까지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옷'은 사람들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2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패션의 변천사와 이에 얽힌 사람들 이야기다. 기쁨과 행복을 주는 패션의 이면에는 전쟁, 착취, 차별, 탄압, 사치와 같은 그늘이 숨어 있다.

3부 '패션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서는 제 목 그대로 걸려있지만 외면할 수 없는 패션의 단면을 다룬다.

일례로 미에 대한 사회 통념에 맞춰 몸을 즐라매는 코르셋은 수백 년 동안 여성을 옷 속에 가렸다. 여성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 바지를 입고 처음 거리에 나섰을 때 사람들은 이들을 손가락질했다. 일제 강점기 우리 여성들은 한복 대신 일본식 '몸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현재 패션 산업은 더 큰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저개발 국가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모피와 가죽을 얻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며, 실제로는 환경을 위한 패션이 아닌 데도 그런 듯 위장하는 그린워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입을 것인가'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다.

요즘의 레트로 혹은 뉴트로 유행을 보면 유행은 영원하지 않으며 돌고 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절제하는 우아함을 추구한 댄디들,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힙스터의 역사와 무분별하게 새로움을 추종하는 것의 문제점, 아름다움과 가치를 식별할 수 있는 좋은 취향, 명품의 역사와 속성, 한국과 프랑스에서 경험한 명품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의 패션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저자는 "이 책이 옷과 옷 입은 인간에 대한 생각의 폭을 조금이나마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금 내가 입은 옷이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한다면 조금 더 풍요롭고 충만한 삶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어른의 인성 공부=신동기 저자 '어른의 인성 공부'는 수산·제가·치국·평천하로 통칭되는 '대학'의 8조목과 3강령을 기본 틀로,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인성'에 대한 여러 통찰을 탐구했다. 물론 그 통찰은 21세기 현재의 정치·경제·문화 환경과 민주주의 시민의 입장에서다. 사람의 성품 즉 '인성'이 무엇일까 한번쯤 근본적으로 고민해 본 이들, 인간과 사회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책이다. /생각여행·1만8천원



▲사이닝=은포세지음, 손화수옮김 2023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은 포세의 '사이닝'이 출간됐다. 어느 초겨울 저녁, 삶이 지루해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갔다가 어둠과 깊은 숲속 눈발에 고립된 한 남자의 이야기다. 이 간결하고 놀라운 미스터리해 삶과 죽음의 문턱이 지천에 놓인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일상의 숭고함을 일깨워주는 한 편의 아름답고 기이한 우화다. 가장 쉬운 단어로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유의 절제된 단문과 명징한 묘사, 음악적인 독백의 문체, 반복적으로 되감기되는 좌절과 희망, 믿음과 의심, 자책과 회심의 문장은 막다른 길에 봉착한 인간 내면에 대한 강력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문학동네·1만3천500원



▲타임 투어=문나인글, 양양 사진 이 작품은 과거로 시간여행을 갈 수 있는 미래를 배경으로 열여섯 살 소녀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홉 살의 나와 만나게 되는 이야기다. 작품 주인공 해수는 지옥 같은 현실을 날개 한 과거의 선택을 되돌리기 위해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다.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은 새 삶을 향해 아무도 가지 않은, 새 길로 나아간 해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북극곰·1만4천원



▲미세 좌절의 시대=장강명 저자 '미세 좌절'은 장강명이 새롭게 고안해낸 조어다. 국가가 장기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기업은 여러 경영 방식을 택하지만 정작 시민 개개인은 그러한 체계 속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실패를 겪는다. 이 만연한 실패의 감각을 작가는 '미세 좌절'이라 명명한다. 삶의 목표가 생존 그 자체가 돼버린 시대, 현대사회의 여러 병폐를 들여다보고 문제의식을 펼치는 작가의 진단이 책 속에 충실히 담겨 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신문과 여러 잡지에 발표된 이 구십여 편의 글들은, 독자로 하여금 사회·정치·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에 눈뜨고 불안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게 하는 데 커다란 힘을 줄 것이다. /문학동네·1만8천원

80여년 세월 회고... '고마운 인생, 행복한 촌놈'

최병환 전 대덕농협 조합장 자서전 출간

최병환 전(前) 담양 대덕농협 조합장이 자서전을 출간했다. '고마운 인생 행복한 촌놈'이 바로 그것이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옛말이 있는데 최병환 전 조합장(80세)이 그렇다. 평생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는 고향에서 가족과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를 지키며 지역 발전에 헌신해왔다.



그의 자서전 '고마운 인생 행복한 촌놈'에는 아동기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등 그의 전 생애가 진솔하게 담겨 있다.

6·25전쟁이 발발해 뒤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일부 지역 4H운동을 주도했던 일,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갈전시장'의 흥망성쇠, 새마을운동으로 마을길을 넓혔던 일, 1970년대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렸던 '콩쿠르대회'까지, 한때 활기가 넘쳤던 우리 농촌의 모습이 그의 삶과 겹쳐 한 편의 대서사를 이루고 있다.

특히 1989년 초대 민선 대덕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후, 16년간 조합장으로 일하고 담양군 의회의원(3기)을 역임하면서 군정발전에도 헌신했다. 조합을 이끌면서 성장조합에서 봉사조합을 거쳐 1등급 조합을 달성하기까지 그

의 노력과 헌신이 여실히 담겨 있다. 농협은 농민과 조합원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농촌의 발전을 위해 뛰었던 그는 모든 성과를 열심히 일해준 임직원들에게 돌렸다. 덕(德)을 쌓되 공(功)은 양보하는 그의 인품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부분이다.

최병환 전 조합장은 "평범한 인생이지만 자서전을 쓰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어 뜻 깊은 작업이었다"고 자서전 출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말 자신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